

Summary

In 1985, Kumamoto University planned reconstruction of campus. But it was known that some of campus are designated as buried cultural assets zone. In the fiscal year 1994, Kumamoto University formed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Archaeological Operation Office in haste, and since then has been enforcing the excavations of the campus sites when the superannuated school buildings were rebuilt.

We have two main campus sites at another areas. The one is the Kurokami area where is constituted of the faculty of science and the department of technology (south area),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law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literature (north area), and locates in Kurokamimachi site. The site located at the foot of Mt. Tatuta (above 151.6m) on a low terrace (above sea level 18~25m) formed by the Shirakawa River. The site are regarded as an ancient station "Kokai". The other one is the Honjo area where is constituted of the medical science department, medical treatment junior college (south area), and the attached hospital (north area), and belong to Honjo site. The site located on a low terrace (above sea level 12 ~ 13m) formed by Shirakawa River, similar to Kurokamimachi site. It is 2km from Kurokamimachi Ruins to Honjo in a straight line. In the circumstance of Honjo site, there are large ancient village sites like Oe site and Shinyasiki site.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in the current year is the following; excavations are 5, presence investigations are 6.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At 9901 excavation spot in the Honjo site, the space we excavated is 2405 square meters before a ward is constructed. We discovered 9 dwellings of the early Kohun Age, a ditch of the last stage of Kohun Age, 18ancient dwellings, 16ditches, a tomb of the Middle Age, and a ditch of the early modern time.

As remains, including pottery and stoneware of the last stage of JomonAge and from Kohun Age to early modern time. At the excavation, we are the first to discover the village of the early Kohun Age in this area, and made it obvious that the village spreads near the river.

The 9907 excavation spot in Kurokami, located on a low terrace formed by Shirakawa River. We excavated this point before the building of the faculty of science is constructed. The space is 136 square meters, we discovered the culture layer of the Jomon Age at 0.5 meters underground. The thickness of this layer is 20 centimeters and it includes about 200 fragments of pottery and some obsidian flakes.

The 9909 excavation point locates in Kurokamimachi Site too and is the nearest point to Shirakawa River. The space is 1853 square meters, and we excavated this point before the building of the department of technology is constructed. As a result, we researched 54 tombs of modern Age and the late Edo, and field of the Middle Edo. The field was covered with sand by flood. We found many pieces of cerameic, coins made from bronze and iron and a pipe, and discovered barleycorns and beans.

The 9908 excavation point locates in east Kurokami area, we didn't find any ruins and remains.

At four excavations in current year, we got splendid results as above. But we can't execute smoothly because of stuff shortage at longtime research, it is an issue must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熊本大學校(구마모토대학교)는 건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1985년부터 재건축을 할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위해 급하게 조사위원회와 조사실을 편성하여 1994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내의 유적은 크게 두 지구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지구는 공학부, 이학부(남쪽지구), 교육학부, 법학부, 문학부(북쪽지구)가 자리한 黒髪(구로카미) 캠퍼스로, 黒髪町(구로카미마치) 유적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龍田山(다츠타산-해발 151.9m) 기슭의 상위하안단구(해발 18-25m) 위에 위치하며, 고대 "蚕養(코카이)"의 역사(驛家)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지구는 의학부, 의료단기대학(남쪽지구), 대학부속병원(북쪽지구)이 위치한 本莊(혼조) 캠퍼스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지구는 혼조유적의 일부로, 黒髪유적과 함께 白川(시라카와) 강의 상위하안단구(해발 12-13m) 위에 자리잡고 있다. 혼조유적은 黒髪유적에서 직선거리로 2km 쯤 떨어져 있고, 가까운 곳에 大江(오오에)유적과 新屋敷(신야시키)유적 등의 고대 대단위 취락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올해 매장문화재 조사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발굴조사는 5건과 임회조사 6건으로 발굴조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9901지점은 혼조유적 내에 포함되는 곳으로, 대학병원의 병동의 건설하기 위해 2405㎡의 면적이 발굴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은 고분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9기, 그 위층의 문화층에서 고분시대 말기의 도랑 1기, 고대의 주거지 18기, 도랑 16곳, 굴립주건물 6채, 중세분묘가 1기, 근대 도랑이 1곳 발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縄文시대 후·만기의 토기와 화살촉, 타제석부, 옥 등과 함께 고분시대부터 근대까지의 陶器(도기)와 陶瓷器(도자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금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서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분시대 初期(초기)에 속하는 촌락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고대촌락의 범위가 강 가까운 곳까지 분포하고 있음도 본 발굴조사에서 알게 되었다.

9907지점에서는 구로카미지구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시라카와 강의 자연단구상에 자리잡고 있다. 본 조사는 이학부연구동건물의 신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면적은 136㎡이며, 지표아래 0.5미터 지점에서 縄文시대로 생각되는 약 20cm 두께의 문화층을 발견하였다. 문화층에서는 早期(조기)부터 晩期(만기)로 생각되는 토기편가 200여점, 흑요석박편 대역섯 점이 출토되었다.

9909지점 역시 구로카미마치유적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며, 기왕의 조사지점 중에서 가장 시라카와 강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점이다. 공학부의 연구동건물의 신축을 위해 1853㎡의 면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 분묘와 에도시대 후기의 분묘 54기, 에도중기로 추정되는 발등이 발굴되었다. 에도시대의 발은 홍수로 인해 흘러 내려와 쌓인 모래층으로 뒤덮여 있었고, 출토유물로는 도자기, 화폐(銅貨/鐵貨), 대통(煙管) 등이 확인되었으며, 발흙 속에서는 보리와 콩 등의 씨가 발견되었다.

9908지점은 黒髪(구로카미) 동쪽지구에 위치하는 곳으로 금번 발굴조사에서는 유물이나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4차례에 걸친 금년도의 발굴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긴 기간 동안에 걸친 조사로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